

동화를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의 동시적 한국어교육 설계 시론* **

신주철***

|| 차례 ||

- I. 서언
- II. 동화 활용 의의와 선정 기준
 - 1. 한국어교육에서 동화, 동화 활용의 의의
 - 2. 동화의 선정 기준
- III. 교육 설계의 전제 및 동시 교육의 효용성
 - 1. 교육 설계의 전제
 - 2.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의 동시 교육의 효용성
- IV. 교육 과정 및 내용
 - 1. 교육 과정
 - 2. 교육 내용
- V. 결론

【국문초록】

2000년대 한국사회의 학문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다문화사회화’이고 그것을 추동하는 중심축의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그녀들이 구성원이 되어 이룬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의 ‘동시적인’ 한국어 교육과 습득에 대한 교육방안을 설계하였다.

-
- * 이 연구는 201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신찬양, 김은수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유아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대체로 잘 수행하지 못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3단계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였다. 1단계에서는 한국어교사가 동화를 활용하여 아동의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한다. 2단계는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 유아자녀, 교사가 함께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3단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유아자녀에게 동화를 교육하는 가정교사가 되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학습기, 교사의 보완·정리기이다.

이상의 과정이 무난하게 수행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창작동화를 자연스럽게 읽고 이해하고 구연할 수 있다. 둘째, 유아자녀의 텍스트 이해력과 상상력을 확장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증진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동화 활용, 동화 선정, 여성결혼이민자, 유아자녀, 동시 교육, 교육 설계, 교육 과정, 교육 내용

I. 서언

2000년대 한국사회의 학문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다문화사회화’이고 그것을 추동하는 중심축의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그녀들이 구성원이 되어 이룬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여성결혼이민자는 전국적으로 1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 가운데 취학하는 아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한국어교육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습득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에 관한 연구는 크게 ‘언어능력 특성에 관한 연구’, ‘언어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지원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상관성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능력 특성, 언어교육

방안 및 교육지원 실태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를 각각의 대상으로 삼아 개별적인 연구주체로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 자녀의 언어발달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교육지원 실태,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의 언어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순연¹⁾, 오성숙²⁾,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³⁾, 최현욱·황보명⁴⁾, 박은정⁵⁾ 등의 연구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상관성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만 아니라 이동복지, 유아교육, 언어치료, 초등교육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여러 연구영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곽홍관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동화·동요를 활용하여 36개월 미만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비교집단에 비해 언어표현력이 향상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와의 상호작용도 긍정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방문지도사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를 기반으로 삼아 제3자를 통하여만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 동화·동요를 통한 언어발달 측정

1) 정순연(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오성숙(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 가정환경자극과 유아 언어능력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제30권 제3호.

4) 최현욱, 황보명(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제10권 4호.

5) 박은정(2010), 『어머니 언어입력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발달 과정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도구가 발음, 어휘인지능력 등의 세부영역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⁶⁾ 현은애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 모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위해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림책 자체를 가지고 한국어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와 아동과의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소재로서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즉, 수업의 목표가 그림책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이 아니라 다른 목표의 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림책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의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⁷⁾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다수 선행연구가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경우도 기껏해야 2~3개월에 걸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장기적인 교육과 관찰을 통해 현장의 실제 원인과 결과를 정밀하게 추적하지 못하였다. 둘째, 대다수의 연구가 음운, 발음, 어휘 차원에서 이루어져 맥락을 갖춘 이야기, 특히 유아자녀를 교육하는 데 요긴한 동화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가 부족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의 ‘동시적인’ 한국어 교육과 습득에 대한 교육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글을 상당한 수준까지 습득하여 한국어 텍스트를 비교적 원활하게 읽을 수 있어도 텍스트 내·외적 맥락을 적절하게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에 유아기의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고를 확장하며 창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된

6) 곽흥란(2010), 「동화·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법 연구 :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현은애(2011),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를 위한 어머니 대상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다. 심지어는 유아 자녀의 물음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자녀 교육에 자신감을 상실하기까지 한다. 필자는 이에 주목하여 먼저 한국어교사가 동화를 활용하여 아동의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하고 그 다음으로 ‘교사-여성결혼이민자(어머니)-유아자녀’가 함께 교수-학습을 수행하고, 최종 단계인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유아자녀에게 동화를 교육할 수 있는 가정교사가 되는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가 설계하는 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창작동화⁸⁾를 자연스럽게 읽고 이해하고 구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교사’가 함께 유아자녀에게 동화 읽기와 구연하기를 지도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유아자녀와 유연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셋째,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기록하여 차후에 보다 향상된 교육과정과 내용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신이 빠진 상황에서 수행되는 ‘여성결혼이민자-유아자녀’의 동화 읽기와 구연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한다. 이밖에도 앞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증진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의도하는 것,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텍스트 이해력과 상상력을 확장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등도 본 설계가 의도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8) 창작동화는 전래동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인물 형상화가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개성적으로 되어 있고, 표현방식도 묘사와 대화를 많이 사용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자료로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II. 동화 활용 의의와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유아자녀를 동시적인 교수 대상으로 상정하여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아자녀에게 동화 읽어주는 것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수행되는 교육적 행위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아동의 발달과정을 볼 때 유아기에 언어적, 정서적 기반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동화를 활용한 교육은 유용한 점이 많다. 따라서 적절하게 설계된 동화 활용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유아자녀의 동시적 한국어교육은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자녀의 언어적, 정서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그와 같은 논의의 배경으로서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동화 활용의 의의와 동화 선정 기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한국어교육에서 동화, 동화 활용의 의의

한국어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지체현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취학하고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그 차이는 급격하게 좁혀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업 성취도나 정서발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부진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설계와 실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제안하는 유아에게 동화를 활용한 교육을 할 경우, 유아는 이야기 듣기를 통하여 어휘가 늘고 교사 또는 부모가 읽어준 텍스트를 이야기 해보는 ‘재연하기’를 하게 되면 문어와 구어를

익히면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글 내용에 대한 인식,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와 분명한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이야기 구조의 개념을 연마할 수 있고, 특히 이야기 속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타자와 대상에 대한 공감력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자기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가미하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 문어에 능숙하지 못한 학습자들이더라도 텍스트에 접근하기에 부담감이 적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활용 대상이 되는 창작동화는 쉬운 단어와 표현, 문장과 문형들이 반복되어 언어학습에 유용하다. 또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유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실생활에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더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학습이 대개의 경우 정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인 동화를 매 교육 시간마다 한 편씩 끝내는 방식은 한국어 학습 효과를 높이기에도 적절하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바람과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동화를 활용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안정감이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화를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유아자녀 대상 교육은 정서적인 공감력을 높일 수 있는 측면과 함께 ‘맥락’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맥락은 사물이나 사태 등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 맥락 읽기가 중요한 것은 독자가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바탕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 자녀는 쉬운 텍스트로서의 동화를 읽으면서 단순히 이해하고 지식을 얻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익히면서 자신 나름의 이야기를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동화와 동화를 활용하는 교육적 의의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기 자녀의 한국어교육적 단계에 부합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다양한 한국어 표현 및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대해 학습하기를 원하는데 창작동화는 그러한 요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다. 유아기 자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가 왕성한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휘량을 대폭 늘리게 되고 한국어의 통사구조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며 세상에 대한 간접경험으로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동화는 서사맥락을 갖추고 있는 글로서 이것을 교육하면 글의 구성과 전개에 대한 구조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어질 내용과 구성을 추측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구문의미이해력, 언어구조의 이해와 문장구성 능력의 향상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에게 한국어 이해와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2. 동화 선정의 기준

동화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동시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동화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동화 선정 기준과는 다른 측면들을 살펴야 한다.

먼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휘나 표현 등이 비교적 명료해야 한다. 한창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두 대상자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어렵거나 이중성을 갖는 표현을 피하고 되도록 상황에 적절하고 쉽게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완결된 문장이 많이 쓰여 있어 문장구조를 파악하여 문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문장구성능력이나 구문의미이해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화이어야 한다. 일반 유아 대상 동화는 아동의 상상력

과 추리력을 증대하기 위해 말줄임표와 문장성분의 생략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대상자를 위해서는 쉽게 구성된 완결 문장이 보다 적합하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문화가정에 적합해야 하는데, 유아 대상 동화들 중에서 편견이 내포되지 않은 것으로서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여 유도하는 동화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기 자녀를 모두 만족시키는 내용의 동화이어야 한다. 두 대상자가 큰 어려움 없이 함께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문화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내용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주, 관습, 의식 문화가 많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⁹⁾

Ⅲ. 교육 설계의 전제 및 탐구 주제

1. 교육 설계의 전제

본고가 의도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전제로써 몇 가지 확인해야

9) 구체적으로 대상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도서 전문 서점인 “해오름”이나 어린이 도서를 연구, 추천하고 인터넷 상 도서 평을 받고 있는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의 권장도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시 작품으로 『내 거야!』(레오 리오니 지음, 이명희 옮김, 마루별 펴냄)를 간단히 소개한다.

이 책은 어린 아이들이 처음 만나 친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내용적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나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다룬다. 유아들이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라는 문제를 다루어 개연성이 높다. 또한 용어가 쉽고 비교적 정확하며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아이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였다. 유아 그림책이 어휘 반복이나 말줄임표가 많은데 이 책은 전부 문장으로 되어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기 자녀에게 적합하다.

할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한국어능력시험 기준 중급 이상이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 다른 대상자는 만3세 이상이며 취학 전인 유아로 한다. 만3-4세 사이에는 어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어휘 폭발의 시기’가 된다. 만4-5세 사이에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길게 늘일 줄도 알고 특별히 좋아하는 책(주제)이 생기고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 만5-6세기에는 글자와 단어 놀이를 즐기고 들은 이야기를 모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며 좋아하는 책이나 자주 보는 책의 문구를 인용하여 말하기도 한다.¹⁰⁾ 이러한 특성들은 유아의 이 시기에 보다 많은 동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조부모의 존재/동거 여부, 형제 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대상자 후보의 가족(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을 만나 교육의 취지를 밝혀, 가족구성원 모두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다. 그리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도하차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둘째, 교수-학습 시행에 앞서 언어치료 전문가에게 적절한 자문을 구한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의 교육에 앞서 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검사도구를 활용하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하여 미리 학습하여 본 검사 시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동화 작가 및 유아교육 전문가를 만나 주차별 동화 선정 및 교육설계의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위한 교육용 지침서를 만든다. 이를 통

10) 송요현,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4-25면.

하여 교수-학습 3단계에서 전개되는, 교사가 빠진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이상에서 전개한 배경 논의와 교육 설계의 전제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안’이며 교육 현장에서 검증하지는 못한 것이기에 ‘시론’이 될 것이다. 필자가 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주제들은 아래에 적시된 것들인데, 앞서와 같은 시론적 성격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설계에 치중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주제들은 필자가 본 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 과제로 진행할 실제의 교육과정을 통해 탐구되고 논의될 것이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창작동화 텍스트를 읽거나 구연할 때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는 어머니의 한국 창작동화 읽어주기와 구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셋째, 한국어교사가 ‘여성결혼이민자-유아’에게 동시에 동화 읽기와 구연하기를 지도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유아 각각의 한국어 습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또한 교수-학습의 긍정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

넷째, ‘유아+여성결혼이민자(어머니)+교사’로 이루어진 소모둠에서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국어교육적 측면에서 그 과정에서의 긍정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교사-여성결혼이민자’, ‘교사-여성결혼이민자-유아’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난 후 한국어교사 없이 이루어지는 ‘여성결혼이민자-유아’의 동화 읽기와 구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교육 과정 이전에 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여섯째,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에 대한 사전 진단평가에 비해 최종 평가에서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과정

과 결과의 종합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의 동시적 교육의 효용성

한국어교육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기 자녀를 동시에 교육하는 교육적 필요성 및 효용성에 대해서는 크게 언어적, 정의적,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대상자 모두 한국어능력이 한창 개발되는 단계에 있다. 어머니와 유아 자녀는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언어를 습득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제2언어 교육, 그 자녀의 경우에는 제1언어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두 대상자의 언어적 배경 및 목표, 그에 따른 교육 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두 대상자를 늘 따로 교육하였을 때에는 의사소통의 접맥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다.

둘째로 정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대상자를 함께 교육하게 되면 공유하는 시간만큼 언어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언어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두 대상자의 동시적 교육은 정서적 교감을 증진시켜 어머니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유아기 때 발달하는 여러 능력을 고취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자녀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적 교감은 언어인지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셋째로 교육적인 측면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교육은 거의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따로 교육하였다. 그러나 유아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아이를 떨어뜨려놓고 교육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다. 이를 테면 한국어 방문교육 지도사가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동안 아이가 투정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다.¹¹⁾ 한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진행할 때에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을 맴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여성결혼이민자와 그의 유아 자녀는 각각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나 함께 교육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함께 교육하는 것은 상황적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기 자녀의 동시적 한국어교육은 언어적, 정의적, 교육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 동화 내용을 이해하고 읽기 및 구연하기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수업 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기 자녀는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증진하여 정서적, 언어적으로 많은 향상을 하게 될 것이다.

IV. 교육 과정 및 내용

1. 교육 과정

본 교육은 18개월의 과정으로 설계되는데 구체적인 교육 상황에 따라 12개월, 24개월 등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분기를 따라 이루어질 기본적인 구성과 전개는 다음과 같다.

11) 이세화(2012), 『한국어교육지도사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교육 개시, 1차 교수-학습기 6개월	교육목표 확인 및 교육 대상자 확정, 진단 평가 실시 '여성결혼이민자와 교사'의 교수-학습기
2단계	2차 교수-학습기 6개월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 아동, 교사'의 교수-학습기
3단계	3차 교수-학습기 6개월, 마무리, 정리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학습기 교사의 보완, 정리기

본고가 제안하는 교육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교육 대상을 결혼이민자, 유아자녀 각각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묶어 다룬다. 둘째, 교사가 2~3명으로 구성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교육한다. 셋째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자신의 유아자녀에게 동화를 교육할 수 있는 가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조력한다는 점이다.

앞과 같은 방법론적 특징을 가진 본고가 제안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될 것이다. 앞서 첫 번째 연구과제로 제시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창작동화 텍스트를 읽거나 구연할 때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접근하게 된다. 이 과정의 목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창작동화를 맥락적, 문화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구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동화 읽기와 구연하기를 지도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이 대체로 부정기적, 간헐적이며, 집합교육의 경우 출석이 일정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6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매 교육시간마다 한 편의 동화, 또는 2차시에 한 편의 동화를 소화하면 적절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1단계를 지나면 아동의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와 아동을 함께 앉혀 놓고 동화를 읽고 구연하기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1단계에서 교사와 한국동화를 읽으며 등장인물들의 역할에 맞추어 구연을 할 수 있게 된 어머니가 주도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교사와 어머니가 읽으며 구연해주는 것을 잘 듣고 구연하기로서의 ‘다시 말하기’¹²⁾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의 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활하게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3단계 교육과정이 전개되는데 교사는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아동이 동화 읽기와 구연하기, 다시 말하기를 하게 된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유아자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두 대상자는 보다 원활하고 바람직한 소통방식을 찾아가게 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일방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아자녀와 작용-반작용을 통해 둘 다 한국어능력을 신장하게 될 것이다.¹³⁾

2. 교육 내용

1) 1단계

1단계는 “교육 개시와 1차 교수-학습기” 6개월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는 교육목표를 확인하고 교육 대상 구성원을 확정된 후 그들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2) 들은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retelling)는 이야기 구조를 따라 다시 말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구조 개념을 발달시키고, 다시 말하기 전 들은 이야기를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력과 인식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13) 송요현(2009),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인하대학교 대학원 소비자동학과 박사학위논문. 최근의 연구가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관계라는 양방향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한국어능력에 대한 진단은 이해력과 표현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력은 듣기와 읽기영역, 표현력에서는 말하기영역을 검사하기 위해 우선 언어이해·인지력 검사와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를 하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는 문장단위의 문항을 검사대상자에게 들려주고 네 가지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를 통해 검사자는 대상자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특히 구문을 얼마나 잘 듣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언어이해력에 어려움을 보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아직 우리말에 서툰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기 자녀의 언어이해력 수준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표현력은 채종옥¹⁴⁾에서 설정한 이야기 구성능력 분석도구를 활용할 것이다. 이 검사도구는 Morrow(1990:176)¹⁵⁾의 ‘들은 이야기 다시 말하기(retelling)’에서 유아들이 재구성한 이야기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야기 질의 분석도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후 들은 내용을 얼마나 잘 구성해내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동화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한국어 표현능력이 향상된 정도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 도구에서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적절하게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채종옥(1995),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른 유아의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8면.

15) Morrow, L. M. and J. K. Smith.(1990), 『Assessi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ory through their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narrative』, 『In Assessment for Instruction in Early Literacy』 ed, Prentice-Hall Inc, p.176.

평점 기준 점수	도입	주체	구성	결말	순서
3점	주인공의 이름,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에 대해 언급한 경우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해결해야 할 주요목표나 문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결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이야기 거리가 3개 이상 있는 경우	주인공의 문제해결로 끝나는 경우	적절한 순서
2점	주인공의 이름, 이야기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것 중 2가지만 언급한 경우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해결해야 할 주요목표나 문제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결말과 불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이야기 거리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주인공의 문제해결과 관계는 없지만 이야기 끝의 형식을 갖춘 경우	부분적으로 적절한 순서
1점	주인공의 이름, 이야기의 시간이나 장소 중 한 가지만 언급한 경우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해결해야 할 주요목표나 문제가 불분명하며, 결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이야기 거리가 없거나 1개 있는 경우	주인공의 문제해결과 관계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

진단평가가 끝난 후에는 교사와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수-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밝혀온 바처럼 여성결혼이민자는 유아자녀들에게 일반가정의 어머니들처럼 동화를 읽어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곤 하는데 교사가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동화 읽기와 구연하기를 지도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의성어, 의태어 등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정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작품의 절정 부분에서는 훨씬 더 긴박감 있게 읽는 방법 등을 교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는 등장인물들과 사건의 상황에 맞게 동화를 읽고 구연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2) 2단계

2단계는 “2차 교수-학습기” 6개월로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 유아자녀, 교사가 함께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기간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사가 되어 유아자녀와 1:1로 교육하기에 앞서 교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아동을 함께 교육하게 된다. 이때 여성결혼이민자는 1단계에서 학습한 동화 내용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의미 전달 방법, 교육적인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하여 익히게 될 것이다. 또한, 아동도 교사와 어머니와의 학습을 통하여 후에 행해질 어머니와의 1:1 교육 상황을 예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 자녀가 연습해야 하는 중요한 교수-학습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고 이끄는 교사로서의 태도, 가르치는 교사를 존중하고 따르는 학습자로서의 태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교사가 되어 자녀를 이끌어 가야 하는 다음 단계의 교육을 고려하여 교수자, 학습자의 위치와 태도를 명확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 자녀의 관계와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정하며,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의주시하여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3단계

3단계 “3차 교수-학습기” 6개월은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학습기, 교사의 보완·정리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어머니)는 유아자녀에 대해 동화 읽어주기와 구연하기를 수행하며 교사는 적당한 간격으로 방문하여 확인하고 상담하는 조력자가 된다. 앞의 1-2단계를 거치며 동화 읽기/듣기와 구연하기를 상당한 정도 숙련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는 이제는 교사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교수-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의 한 전제는 동화를 통한 어머니의 언어 작용이 유아의 언어와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의 반응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운 태도로 자녀를 격려하고 열린 태도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최근 연구는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이라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유의미함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¹⁶⁾

이상에서 전개한 교육 과정 설계에서 보여준 바처럼 장기적으로 수행되는 현상학적 방법론으로서의 교육은 문제상황에 복잡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유용하다. 설계안에 따른 실제 교육 과정에서 산출되는 작용-반작용, 긍정점과 문제점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적절하게 분석한다면 한국어교육에서 맥락이 있는 이야기로서의 동화를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유아자녀 대상 교육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200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다문화사회화’와 관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그녀들이 구성원이 되어 이룬 가정의 문제를 주목하였다. 유아기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은 대부분 문화권에서

16) 송요현, 현은강(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 동남아시아 결혼이민자가정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아동학회, 35-52면.

권장되는 보편적 현상인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유아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대체로 잘 수행하지 못한다. 이에 본고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자녀의 ‘동시적인’ 한국어 교육과 습득에 대한 교육방안을 설계하였다.

그것은 3단계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설계되었다. 1단계에서는 한국어교사가 동화를 활용하여 아동의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한다. 2단계는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 유아자녀, 교사가 함께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3단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유아자녀에게 동화를 교육하는 가정교사가 되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학습기, 교사의 보완·정리기이다.

이와 같은 설계가 현장에서 무난하게 수행되어 의도하는 결과를 얻거나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 교육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동시에 교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습자들을 장기적으로 긴밀하게 대면하는 만큼 교육 과정에서 상세하고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자녀교육의 고충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들에게 참고와 지침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취지와 과정으로 논의된 본고가 가지는 한계는 현장에서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며, 우선 본고를 토대로 한층 향상된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곽홍란, 『동화.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법 연구 :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영애, 『취침전 책 읽어주기 활동과 어머니-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영주, 『아동교육과 동화』, UUP, 2004.
- 박은정, 『어머니 언어입력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발달 과정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선혜, 『그림책 읽기를 통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훈련효과가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송요현,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인하대학교 대학원 소비자동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송요현, 현은강,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 동남 아시아 결혼이민자가정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아동학회, 2010, 35-52면.
- 오성숙,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 가정환경자극과 유아 언어능력과 관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제30권 제3호, 아동학회지, 2009, 23-36면.
- 유안진, 한유진, 『그림책 읽기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과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아동학회지』 22, 한국아동학회, 2001, 147-162면.
- 이상금, 장영희, 『유아문학론』 교문사, 2001.
- 이영자, 『유아언어발달과 지도』, 양서원, 2004.
- 이차숙, 『유아의 그림이야기책 읽기 활동에서 어머니의 매개적 역할이 유아의 문식성 발달 과정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장영숙, 『책읽기 활동에서의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형태와 유아의 읽기 능력』, 『아동학회지』 21, 한국아동학회, 2000.
- 전은애,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남미, 『유아언어교육』, 창지사, 2005.
- 정순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채종옥,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른 유아의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최현옥, 황보명,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제10권 4호, 한국특수문제교육연구소, 2009, 315-329면.

현은애,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를 위한 어머니대상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Morrow. L. M. and J. K. Smith, 『Assessi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ory through their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narrative』, 『*In Assessment for Instruction in Early Literacy*』 ed, Prentice-Hall Inc., 1990, p.176.

Snow. C. E., 『Literacy and language: Relationships during the preschool years』,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53, 1983.

Abstract

Experimental Theory in Simultaneous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Fairytale in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Shin, Ju-cheol

For the 2000's, one of the Korean society's educational debates are circled around 'multicultural socialization', and the one of the promoting pivotal focus is the inflow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 family they have established and become members of.

The writer in this report, would like to structure a 'simultaneous' learning and teach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ethodolog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In most cases,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ir part, are not able to develop creativity and correlate with their children while reading fairytales to their children. The author focuses on this situation, having developed a three-stage teaching-learning method:

In the first stage, a Korean Language teacher educates an immigrant woman, who is the married immigrant of a child by utilizing fairytales. The second stage is the period in which the mother (married immigrant), the child, and the teacher teach and learn together. The third stage is a reciprocal learning period for the mother who educates her child with fairytales and also is a period for the teacher's supplement and organization.

If the stages above are carried out with ease, it would result as follows: First, married immigrant women can naturally read, comprehend, and narrate Korean fairytales. Second, it will enhance the children's emotional stability and exp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texts and imagination. Third, the married immigrant women can improve their self-confidence and self-identity and build cohesion with their children.

Also,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derivative effects as follows: In an academic aspect, it will arouse the importa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tilizing materials with context and promote regarding studies. In a social aspect, it will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Korean society, in which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schoolwork and emotional improvement are in a multicultural socialization. In an educational aspect, the significance of simultaneous education to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will be recognized, and it will promote studies regarding the education in various academic fields.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Marriage Immigrant Women, Children, Simultaneous Education, Experimental Theory, Fairytale

신주철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자우편: maybe0@hufs.ac.kr

<p>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p>
--